

광주 軍공항 이전 내년 상반기 타당성 평가

광주시의 최대 현안사업 중 하나인 군(軍) 공항 이전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광주시는 16일 광주발전연구원에서 '군 공항 이전을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전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해 10월 군 공항 이전을 위한 첫 단추로 국방부에 '광주 군 공항 이전 건의서'를 제출했었다.

시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다음달 국방부 민간위원 자문을 받은 뒤 자문의견을 보완해 광주 군 공항 이전 건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 상반기 국방부 평가위원회의 타당성 평가를 받게 된다. 이 타당성 평가를 넘어서서 이전 후보지 선정 과정 등 본격적인 이전 작업이 진행된다. 이전 후보지는 군 작전성 등을 감안해 국방부가 선정하게 된다.

市, 이전방안 용역 결과 발표

2017년까지 새 부지 선정

이전사업비 3조5000억 예상

광주시가 국토연구원과 광주발전연구원에 의뢰한 용역안에 따르면 광주공항 이전 방식은 기부 대 양여 방식이다. 광주시가 새로운 군 공항을 마련해 주고 기존 부지를 개발해 그 비용을 충당한다. 국방부는 지난 5월 수원 공군비행장 이전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해 적정 판정을 한 바 있다.

적정판정이 나면 국방부와 함께 2017년까지 새 이전 부지를 선정한다. 2025년까지 새로운 군 공항 건설과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는

새로운 공항 건설을 마무리한다. 새 공항 건설 등 이전사업비는 모두 3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기존 광산구 군 공항은 오는 2025년까지 개발 완료할 계획이다. 개발비로 9020억원, 사업 추진과정에서 소요되는 금융비용은 2568억원으로 추산됐다.

광주시는 광주 군 공항부지에 일자리와 문화가 있는 '솔마루 시티'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일자리가 풍부한 경제도시, 삶의 여유가 있는 문화도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푸른도시로 재창조한다는 비전을 담았다. 첨단산업 및 연구개발, 상업, 주거, 공원녹지 용지 등으로 개발해 이전 비용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대표적인 주민 기피시설로 각인된 새로운 군 공항 부지 확보여부가 최대 걸림돌이다. 또 지자체가 막대한 재원을

확보, 이전문제를 도맡아야 한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국방부 타당성 평가를 통과한 수원 공군비행장의 경우도 예비 이적후 보지로 언급된 지자체가 벌써부터 반발하는 등 애로가 적지 않다.

한편, 군 공항 이전을 위한 범시민추진위는 2013년 10월, 지역주민과 관련단체, 전문가, 시의회, 공무원 등 32명으로 구성된 뒤 이전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자문 등을 해왔다.

광주시 관계자는 "국방부의 타당성 평가를 넘는 것이 최대 난제다. 일단 이 부분에 주력할 계획이다"며 "군 공항 이전 뒤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 등 공항 이전 문제를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현일기자 cki@kwangju.co.kr

삶의 움직임, 또는 방향

함정임 칼럼



내가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창밖으로 바다가 보이는 달맞이 언덕의 서재이다. 삶에서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창(窓)이다. 이사갈 집을 볼 때, 서재와 책상의 위치를 정할 때, 열차를 타고 먼 곳으로 떠나고 돌아올 때, 그리고 누군가와 카페 또는 식당에 있을 때, 창(窓)의 위치와 창밖의 형편을 살핀다. 이러한 의식과 행위는 빛, 또는 지향성과 관계가 있다. 버지니아 울프의 장편소설 '등대로',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샤를 보들레르는 시 '등대들의 세계'가 그것이다.

보들레르는 캄캄한 바다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또는 길을 잃을 때마다 빛이 되어줄 등대 같은 존재로 루벤스, 레오나르도, 렘브란트, 미켈란젤로, 고야, 들라크루아 같은 화가들을 호명했다. 마르셀 프루스트는 '나는 소설을 쓸 수 있을까' 또는 '내가 소설을 써도 될까'라는 질문과 소망을 실현케 옮기기까지의 여정으로 과거의 결정적인 장면들을 환기해내는 데 주력했다.

버지니아 울프는 어느 여름 가족과 지인들이 모인 바닷가 저택에서 '등대로 같게'라고 꺼냈던 말을 심어 빛에 걸쳐 이행하는 과정을 그렸다. 빛은 어둠을, 동시에 시간을 품고 있다. 하나의 생각을 향한 시간의 축적은 지향성을 형성한다. 울프가 등대를 매개로 여러 겹의 시간 속에서 돌아보고 고자 했던 것은 아버지라는 존재였고, 그와 원만하지 못했던 관계를 풀어야 하는 바람이 '등대로(To the Lighthouse)'라는 제목에 깃들여 있는 것이다.

일주일 중 하루이틀은 온종일 서재에 머무는데, 그때 창 밖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하늘과 바다와 언덕, 그리고 그들 풍경 속을 들고 나는 구름과 새와 배들이다. 이 모든 것은 동쪽 창가에서 떠올라서는 서쪽으로 사라지는 해와 달, 빛의 흐름 속에 이루어진다. 바람이 불거나, 해무가 자욱하거나, 빛과 그늘이 뚜렷하거나, 더디

게 석양이 기울어지는 어느 순간에는 서재의 책상을 박차고 일어나 울프의 '등대로' 속 누군가처럼 '등대로 같게' 하는 마음이 일기도 하고, 실제로 멀리에서 아끼는 후배 또는 기리는 선배, 문우가 찾아올 때에는 오랜 약속을 실행에 옮길 때의 당당한 목소리로 '등대에 가지!'하고 외치기도 한다. 그러면서 뒤늦게 깜짝 놀란다.

생각을 품었을 때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에서 미묘한 차이를 느끼기 때문이다. '등대로'의 '~로'는 움직임을 방향, 또는 경로를 나타내는 격조사이다. '등대에'의 '~에'는 시간과 공간의 범위, 지향점을 나타내는 처소격(處所格) 조사이다. 전자는 언젠가는 그곳으로 가고 싶다는 지향성(directionality)을, 후자는 마침내 그곳에 간다는 지향점(direction point)을 적시하고 있다.

지난여름, 피약별이 불같이 타오르던 날, 등대로 가는 대신 문창들과 무궁화열차를 타고 대구로 향했다. 대구는 나에게 이성복 선생이 계신 곳으로 통한다. 언제라고 정하지 않고, 1년이면 한두 번 내가 대구로, 또는 선생께서 부산으로 향하곤 한다. 그러다 나도 선생도 서로를 향하기도 하는데, 그때는 부산과 대구의 중간 지점인 경주가 된다. 그날 선생은 '무한화서(無限花序)'에 대해 말씀하셨다. 화서란 '꽃이 줄기에 달리는 방식', '꽃차례'를 가리킨다.

꽃이 피어나고 지는 데에도 어떤 순서, 방향이 있다. 성장이 제한된 것은 무한화서, 성장에 제한이 없는 것을 무한화서라 한다. 선생은 지난 13년 간 궁구한 언어와 대상, 시와 시작(詩作), 삶을 '무한화서'로 정리하셨다. 그날의 내용은 '극지의 시', '불불화하는 말들'과 함께 같은 제목으로 며칠 전 출간되었다. '무한화서'를 펼치며 마르지 않은 잉크 냄새와 함께 선생의 필체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시는 나날의 소신공양이예요.' 그날 선생은 화두처럼 시의 자리에 무엇이든 놓아볼 것을 권하셨다. 무궁화열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 흔들리는 차창으로 밖을 바라보며 화두에 전념했다. 바닷가 언덕의 서재로 돌아오자, 밤이 깊었다. 화두는 사로잡히거나 벗어나거나 둘 중의 하나였다. 그리고 어떤 것이어도 그것은 서로 다르지 않았다. 날이 밝으면 등대로 가리라 마음먹었다.

(소설가, 동아대 한국어학과 교수)



빛가람 에너지밸리센터 건립 착수식이 16일 오후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내 부지에서 열렸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한전 에너지밸리센터 착공

나주혁신도시내... 입주기업 창업·연구개발 지원

한국전력의 빛가람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에너지밸리센터가 16일 나주 혁신도시에서 착수식을 갖고 본격적인 건립공사에 들어갔다.

에너지밸리센터는 나주 혁신도시내에 부지면적 9334㎡, 연면적 약 7550㎡, 지상 5층 지하1층 규모로 약 200억원을 들여 세워진다. 계획은 2017년 완공이 목표지만 최대한 준공시기를 앞당길 방침이다.

이 센터는 한전이 500개 기업유치를 목표로 추진 중인 빛가람 에너지밸리에 이 전이나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과 창업보육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이끌어갈 핵심 컨트 롤 타워 역할을 맡는다. 산학연 지원시설

로 행정지원센터를 갖추고 자치단체와 한 전이 인력을 파견해 에너지밸리 안내, 세 제 지원, 법률·금융지원 등도 한다. 또 에 너지 관련 분야 교육장과 회의실을 마련 해 전력 산업계가 요구하는 관련 분야 창 업 교육과 지역인재 양성에도 나설 계획 이다.

연구개발 수행연구원 대상 교육 프로그 램도 운영하며 일부 기자재 검사 기능도 함께 수행한다.

한전 관계자는 "에너지밸리센터를 통 해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에 조성하는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대기업 110억 투자·수출 협약

광주시 투자유치단은 15일 일본 도쿄 페 난솔라호텔에서 일본기업과 110억원 상당의 투자 및 수출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투자협약 내용은 광주소재 (유케이)테크코리아가 일본 (주)KTech와 함께 60억 원을 투자해 건축플랜트 생산라인을 구축 하는 것으로 생산물량은 전량 일본으로 수 출하게 되며, 신규로 20~30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광주시에 기반을 둔 금호타이어주식 회사는 앞으로 5년간 50억원의 자동차 타 이어 완제품을 일본 (주)테크노피아에 수 출하는 협약도 체결했다.

광주시는 기존 공장시설로 수출물량을 맞추기 힘든 실정을 파악하고 증설투자를

위한 입지선정에서부터 인센티브 제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투자교섭을 통해 수출을 촉진시키고 투자를 이끌어냈다.

이밖에 차세대조명과 LED램프(E-COLUX)를 개발하고 제조하는 기업인 일 본의 조카이공업(주) 대표를 만나 광주시 가 한국광기술원, 생기원, 고등광기술원, 한국광산업진흥회 등 광산업분야의 우수 한 연구 및 지원기관이 집적화한 광산업 특 화 도시임을 설명하고 투자를 요청했다.

전자부품 및 자동차부품 개발기업인 소 마루(주)의 임원진을 만나 광주의 핵심산 업인 디지털전산업과 자동차산업 인프 라를 소개하고 투자를 적극 유도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밝은광주안과 의원

ICL(안내렌즈삽입술)

ICL이란?
ICL(Implantable Contact Lens-안내삽입콘택트렌즈)수술이란 고도근시 및 원시의 시력교정을 위해 개발된 시력교정수술로 각막은 그대로 보전한 채 특수 고안된 렌즈를 수정체 앞에 삽입하여 시력을 교정하는 방법입니다.

각막두께가 얇거나 심한 안구건조증 또는 각막질환으로 인해 라식, 라섹이 어려운 경우 ICL수술로 시력을 교정 할 수 있습니다.

렌즈삽입술은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최신 설비를 갖춘 전문 병원에서 충분한 노하우를 가진 의사에게 시술을 받아야 안전 합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과 스미일 / 라식 / 라섹 / ICL / 백내장 / 녹내장 / 망막 / 눈성형 / 노인

밝은광주안과

시열병원 |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의료광고심의필 제150204-종-68156호

아이소망

시열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수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열병원.com ☎(062)368-1700